

개인연금 투자일임 허용된다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 발표... 가입자 필요·생애주기에 맞게 종류 변경... 개인연금계좌 도입도

앞으로는 개인연금과 관련해 보험, 펀드, 신탁 등 기존 상품 외에 투자일임이 허용된다.

또 흩어져 있는 연금자산을 한 계좌에 담을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말 현재 개인연금 적립금은 약 292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금융기관과 가입자 모두 연금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위는 개인연금의 순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보험, 신탁, 펀드 등 기존 연금상품을 개인연금법에서 규정하고 투자일임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일임의 경우 금융사가 모델포트폴리오와 디폴트옵션 등을 제시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사업자가 설계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이밖에 라이프사이클 펀드, 자산배분형 펀드 등을 통해 연금자산을 가입자의 필요와 생애주기에 맞게 연금상품 종류를 변경한다.

금융위는 또 다양한 연금상품을 통



지역별 고객체험 마케팅 쉐보레는 최근 신형 말리부에 대한 지역별 고객 체험 마케팅의 일환으로 대전시 한화 이글스 홈 야구장에서 프로 야구팀과 함께하는 대규모 고객 이벤트를 개최, 경기장을 찾은 야구팬에게 신형 말리부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다. 사진은 이날 서부지역권 내 말리부 1호차 고객이 된 문선용 씨와 한국지엠 국내영업본부 서부총괄본부장 황재섭 상무, 성국선 한국지엠 노동조합 군산지회장 등이 기념촬영 하는 모습.

합 관리하는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한다.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이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상품의 가입과 관리, 기여금 납입, 연금 수령 및 세계 인센티브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존의 개인연금상품과 비적격 연금보험(저축성), 개인형 퇴직연금(IRP)

운용현황 등에 대한 관리도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입과 운용, 수령해지 등 연금상품의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장기간 납입·지급되는 상품특성에 맞게 표준화된 신출기준과 통일적

공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연금상품 전문 강화, 개인연금 인프라 구축, 연금정책협의회 구축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인연금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진수 기자

은행 대출금리 하락세 전환

4월 연 3.44%로 전월대비 0.06%p 하락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2.93%로 0.04%p ↓

지난달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전환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6년 4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44%로 전월대비 0.06%p 하락했다. 지난 3월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떨어진 것이다.

이는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금리가 모두 떨어진 영향이다.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반영되면서 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05%p 하락한 연 3.55%, 가계대출 금리는 0.07%p 떨어진 연 3.17%를 나타냈다.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04%p 떨어진 연 2.93%를 기록하며 7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10월(2.90%)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집담대출 금리도 연 2.91%로 전월보다 0.04%p 하락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석달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던 은행의 예금금리는

지난달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1.56%로 전월과 동일했다.

순수저축성 예금금리는 연 1.55%로 전월보다 0.01%p 상승했지만,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은 연 1.62%로 0.01%p 내려갔기 때문이다.

저축성 금리 중 정기예금 금리는 연 1.54%로 전월과 같았고, 정기적금 금리(1년)는 0.01%p 올라 연 1.80%로 다소 회복했다.

이에 예금금리는 그대로인데 대출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4월 예대금리차(1.88%)는 전월보다 0.06%p 좁혀졌다. 지난해 12월(1.74%)부터 석달 연속 상승했다가 6월 만에 하락했다.

다만 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예대마진(잔액기준 총수익·총대출금리차)은 2.19%로 전월보다 0.01%p 올라 5개월째 상승세를 보였다. 잔액기준 대출금리는 연 3.50%로 전월보다 0.01%p 떨어진 반면 수신금리(1.31%)는 0.02%p 하락해 예금금리의 감소폭이 더 컸던 탓이다. /안진수 기자

6·7월 불법사금융 집중단속

금융감독원은 정부 합동으로 다음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금감원·광역단위 지자체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화·인터넷·방문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일제히 접수받을 예정이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법률상담·형사고발 및 수사 의뢰 등으로 원스톱 조치한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 위반한 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영위, 폭행·협박·심야 방문 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 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사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안진수 기자

6월1일 고속도로 전 좌석 안전띠 매야 진입

도공, 6월 한달 동안 안전띠 착용·화물차 졸음사고 방지 캠페인

오는 6월1일 하루 동안 탑승자 중 1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6월 한 달 동안 고속도로 모든 톨게이트와 주요 휴게소, 주유소 등지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화물차 졸음사고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캠페인을 시작하는 이날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입구 TCS 차량에 '안전띠 미착용 차량 고속도로 진입불가' 어깨띠를 두른 인원을 배치,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한 차량만 통과를 허용하고 1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해당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을 계획이다.

안전띠 미착용 탑승자가 있다면 먼저 안전띠 착용을 계도하되 이에 불

응할 경우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어 6월2~3일에는 주요 휴게소, 주유소의 진출부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또한 6월 한 달 동안 도로공사 전국 영업소는 '안전띠 미착용 차량 고속도로 진입불가' '화물차 졸음사고 급증! 제발 쉬었다 가세요!' 등을 기재한 홍보 현수막을 설치한다. 고속도로 도로전광표지 1148곳에서도 이런 문구를 집중적으로 표출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도 참여한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는 2012년 무려 137명을 기록하는 등 연평균 90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3.2%에 달하는 수치다.

교통안전공단 조사에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1.54%로 착용 시 사망률 0.44%보다 약 3.5배 높았다.

그러나 2014년 기준 한국의 앞 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6%에 불과해 프랑스(99%), 독일(97%)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1%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로공사 조사 결과, 지난해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2배 정도 증가하자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는 2014년 84명에서 71명으로 격감해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방증했다.

이와 별도로 화물차가 원인이 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대비 40% 급증(30명→42명)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안진수 기자

“美금리 인상해도 혼란 크지 않을 것”

블러드 연은 총재, “6·7월 금리인상 판단은 유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30일 “올해 여름 미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6월 회의에서 가능한 모든 자료를 들여다보고 판단하고, 이전까지는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러드 총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투표권을 가지는 12명의 위원 중 한 명으로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매과 성향으로 꼽힌다.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은행이 개최한 ‘2016년 한국은행 국제포럼’에 발표자로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시장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잘 준비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지난 2013년 12월에 처음으로 테이퍼링(tapering·양적완화

축소) 결정을 했을 때 국제금융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며 “당시 모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테이퍼링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약 율여름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이와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중앙은행이 금리변화에 대해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연준이 공개하는 점도표(dot plot)에 대해 “그것을 둘러싼 논쟁이 지나치게 많아서 최근 점도표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점도표는 FOMC 성명발표를 앞두고 분기마다 위원 17명이 예상한 기준금리를 보여준다.

블러드 총재는 아울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거듭 강조했다.

/안진수 기자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중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